

벤담과 밀의 공리성과 정의(justice)의 관계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Ethics Class Model through Reading

장 정 훈*

< 목 차 >

- I. 서론
- II. 벤담의 공리성과 정의
- III. 밀의 공리성과 정의
- IV.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적 처벌과 행복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국문초록>

이번 연구에서는 벤담과 밀의 공리성과 정의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는 공리주의에서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최대 행복(선의 문제, 윤리의 영역)과 이를 산출하기 위한 올바른 행동(정의의 문제, 도덕의 영역)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었다.

벤담과 밀 모두 사회적 행복을 위한 공리성의 원리를 주장하였다. 이들의 공리주의적 목표는 18~19세기 영국 사회의 행복을 증진하는데 있었

* 서울문영여자중학교 교사

다.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감소를 추구하는 행동의 목표는 행복 산출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행복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리주의의 정의는 옳은 행동을 한 개인과 그가 속한 개인들의 행복을 최대한 산출하는 것이고, 그런 행동을 한 그와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벤담에게서 처벌은 필요악이었지만, 어떻게 이러한 악들을 사회적 행복으로 전환시키는지가 처벌의 궁극적 목적이었다. 밀은 실제에서 역사적으로 개개인의 권리와 평등을 보호하기 위한 처벌을 중요하게 보면서, 질적인 최대 행복의 산출은 권리와 평등과 같이 한 사람이 본래 갖고 있는 것을 동등하게 고려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간단히 말해, 벤담과 밀의 처벌에 대한 문제는 최대 행복의 원리의 근본적인 토대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공리성, 쾌락과 고통, 정의, 처벌, 사회적 행복

I. 서론

이번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영국의 고전적 공리주의자들인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과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의 공리주의의 기본 특징과 이들의 관계를 공리성(utility)과 정의(justice)의 개념들을 중심으로 탐구하는데 있다. 이미 벤담과 밀의 관계는 공리주의 사상에 있어서 스승과 제자 사이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공리주의 전통에서 이들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밀의 질적 공리주의의 명칭에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낙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 없다면, 우리는 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벤담을 ‘배부른 돼지의 철학자’로 간주하는 자기모순에 빠질 위험이 많다. 나아가 당시 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규범윤리학이 범하는 오류처럼, 벤담과 밀을 단순히 공리주의를 결과주의로만 해석하여 행복 계산을 통해 ‘악’을 긍정하는 이론의 원인 제공자들로 비판할 가능성이 크다.¹⁾ 이러한 오해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벤담과

밀의 사상적 결별의 배경과 그 의미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입장의 차이는 주로 밀의 정신적 위기(1826년~1827년)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에서 보이는 근본적 차이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즉, 벤담의 최대 행복의 원리에서 감명을 받고 있었던 밀이 ‘행복’에 대한 궁극적 문제를 반성하였다는 점이다. 예컨대, 밀 자신이 원했던 사회 진보가 성취되었을 때, 이 순간이 최대의 행복인지를 반문해서 그것이 행복이라면, 이럴 경우에는 근원적인 행복이 없어지게 된다. 말하자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 벤담과 벤담의 친구이자 밀의 아버지인 제임스 밀(James Mill, 1773~1836)로부터 배웠던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다.²⁾ 이는 최고선으로서의 행복에 대한 본질에 대한 고민이다. 밀에게서는 사회의 진보들뿐만 아니라, 예컨대, 예술에 대한 개별적인 정서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고려하고자 했다. 밀은 영국의 낭만주의 전통의 미학과 정서들을 행복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후 엄격한 행복 계산과 측정에만 몰렸던 벤담의 공리성을 극복하고자 했다.³⁾

이를 통해서 볼 때,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이상, 특히 최대 행복의 이상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번 연구에서는 궁극적인 이상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규범적 측면에서 공리주의 이론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견해들이 현대까지 전개되고 있지만, 그 이론의 공통된 이상이 무엇인지, 왜 다르게 보이는지에 관한 문제는 각자의 이론적 입장이 적용된 시대를 고려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 최대 행복의 계산, 이것의 실제적 적용의 문제는 벤담과 밀이 당시 시대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⁴⁾

1) 예를 들면, 쾌락과 고통의 계산만 공리주의 양상을 본다면, 한 명의 강간범이 얻는 쾌락이 강간을 당한 여성의 고통보다 더 크다고 할 때, 강간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처럼 공리주의를 결과주의의 행복 계산으로만 활용하는 오류는 결코 벤담과 밀의 본래 의도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은 이러한 양상을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논의를 더 지속하고자 한다.

2) John Stuart Mill, *Autobiography*, Currin V. Shields (ed.)(New York: The Liberal of Liberal Arts, 1957), pp.86~87; 허남걸, 『공리주의 윤리문화 연구 - 벤담과 밀의 입장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 화남, 2004), pp.17~18 참조.

3) John Troyer (ed.), with introduction, *The Classical Utilitarians: Bentham and Mill*(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2003), introduction, p.x.

4) 이들의 성장과정에서 개별 관심사만 보더라도, 큰 차이가 있다. 벤담의 아버지

실제로 밀이 벤담을 비판을 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벤담이 아니라 당시 공리주의자들을 옹호했고, 나아가 공리주의의 이상을 자신의 시대적 과제에 적용하고자 했다. 이를 밝히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이들의 공리성과 정의(justice)에 대한 사회적 맥락을 검토하고자 한다.⁵⁾

II. 벤담의 공리성과 정의

벤담은 공리성(utility)의 원리를 ‘이성과 법률’을 통해 행복을 목적을 지닌 체계의 기초로 본다. 벤담에게서 행복의 목적은 바로 인간의 고통(pain)과 쾌락(pleasure)의 관계로 구성되고, 이들의 관계가 바로 공리성이다.

공리성이란 이익 당사자에게 이익·이득·쾌락·선·행복(현재의 사례에서 이 모든 것은 동일한 것이다)을 낳거나 손해·해악·고통·악·불행(이 역시 동일하다)이 발생하는 일을 막는 경향을 지닌, 어떤 대상에 들어있는 성질을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만일 그 당사자가 일반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의 행복이 될 것이고, 그 당사자가 특정 개인이라면 그 개인의 행복이 될 것이다.⁶⁾

이에 따른 그의 공리성의 원리는 “자기 이익이 걸려 있는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향에 따라서, 또

는 벤담이 법조인이 되길 원했지만, 벤담의 관심을 당시 시대의 정치제도, 법률 등에 토대를 둔 혁명 수준의 사회개혁을 꿈꾸었고, 밀의 경우는 정신적 위기를 극복하면서 미와 정서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회의 질적 수준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이들의 서로 다른 성장 환경, 사회적 관심사에 따라 각자의 공리주의의 시대적 사명은 외면상으로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

- 5) 특히 벤담의 법윤리적 관심과 영향은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 있다. 그의 관심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대 행복의 공리성 원리의 측면에서 처벌의 의미와 기준의 양상만을 설명하고, 이후 밀의 정의관과 처벌의 양상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 6) Jeremy Bentham,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 of Morals and Legislation*(1823), 고정식 옮김,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과주: 나남, 2011), 제1장 공리성의 원리에 대하여, 3, p29. 이하 이에 대한 표기는 각주로 하지 않고 본문 인용에 바로함.

는 달리 말하면 그러한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반대하는 것에 따라서, 각각의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제1장, 2)이다.

이처럼 그는 공리성과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원리는 매우 간략하고 분명하게 설명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벤담의 공리주의의 이론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모두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이 충돌할 때에는 공동체의 행복에 우선성을 두지만(제1장, 6), 개인의 행복을 통한 일반 공동체의 행복 증진을 동시에 추구한다. 둘째, 공리성의 핵심은 쾌락과 고통에 있고, 벤담은 이들을 산출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성향과 기질, 즉, 심리적 영향도 고려한다. 셋째, 이런 모든 특징은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토대를 둔다. 이러한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행복을 모두 추구하는 행복 계산은 간단히 말해, “그 행위가 해야 할 행위라고 또는 적어도 해서는 안 될 행위”(제1장, 10)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벤담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공리성의 원리, 특히 법률로서 해결된다고 보았다. 우리가 공리성의 원리에 따른 행위가 옳바르거나 그르다고 판단을 내린다는 것, 또는 옳바르거나 그르다는 경향에 따르는 것은 그 자체에 “해야 할 · 옳은 · 그른 등의 딱지”(제1장, 10)가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벤담은 합리적 존재들로 구성된 공동체 전체의 행복 추구는 공리성의 원리가 정부의 정책과 법률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벤담에게서 구체적인 행복의 실현 방법은 쾌락을 증진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키거나 억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벤담은 쾌락과 고통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쾌락과 고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우선 벤담은 개인과 다수의 개인들에게 다양한 쾌락과 고통의 6가지 측정 기준들을 동일하게 제시한다. 쾌락과 고통이 얼마나 강한지, 심각한지, 지속되는지, 확실한지, 가까이에 있는지, 더 유사한 것들을 더 생산하는지, 쾌락 또는 고통 그 자체만 일으키는지에 관한 요소들이다. 다만 여기서 다수의 개인들에게 한 가지 측정 기준들을 더 추가하는데, 바로 쾌락과 고통이 적용될 수 있는 개인들이 수이다(제4장, 2~4). 이를 도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쾌락과 고통의 측정 기준⁷⁾

적용 대상	개인 자체	다수의 개인들
기준 항목 (공통)	1. 쾌락이나 고통의 강도 2. 그것의 지속성 3. 그것의 확실성 또는 불확실성 4. 그것의 근접성 또는 소원성 5. 그것의 생산성 6. 그것의 순수성	
기준항목 (추가)		7. 그것의 범위, 그것이 적용될 (영향을 받을) 개인들의 수

이를 통해 벤담은 14가지 쾌락들과 이들에 상응하는 12가지 고통들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한다. 이들을 도표로 활용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14가지 단순한 쾌락의 종류⁸⁾

단순한 쾌락들	세부 종류
1. 감각의 쾌락	배고픔이나 목마름 충족, 취향, 기호의 쾌락, 도취의 쾌락, 냄새맡는 기관의 쾌락, 촉각의 쾌락, 귀의 쾌락, 눈의 쾌락, 성적 감각의 쾌락, 건강의 쾌락, 건강과 원기왕성함에서 오는 쾌락,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의 충족
2. 부유함의 쾌락	이득 및 취득, 소유의 쾌락
3. 능숙함의 쾌락	노력을 동반한 특정 대상의 수단을 활용할 때 동반되는 쾌락
4. 친목의 쾌락	개인이나 여러 사람들과 좋은 사이에서 비롯되는 쾌락
5. 명성의 쾌락	좋은 평판의 쾌락, 명예의 쾌락, 도덕적 제재의 쾌락
6. 권력의 쾌락	희망과 두려움을 통해 자신에게 봉사하게끔 하는 쾌락
7. 경건성의 쾌락	절대적 존재의 선의나 호의를 취득 및 소유에서 나오는 쾌락, 종교의 쾌락, 종교적 성향의 쾌락, 종교적 제재의 쾌락
8. 자선의 쾌락	절대적 존재, 인간들, 다른 동물들에 대한 선의의 쾌락, 동정심의 쾌락, 자비로운 자나 사회적 애정의 쾌락

7) Bentham(2011 M), 제4장 고통과 쾌락의 가치, 측정 방법 참조.

8) Bentham(2011 M), 제5장 쾌락과 고통의 종류 참조.

9. 악의의 쾌락	인간들, 다른 동물들의 고통에 대한 쾌락, 악의의 쾌락, 성급한 갈망의 쾌락, 반감의 쾌락, 악의적인 자나 반사회적 애정의 쾌락
10. 추억의 쾌락	쾌락과 고통을 당한 것을 경험할 때의 쾌락
11. 상상의 쾌락	특정한 쾌락을 깊이 생각할 때의 쾌락
12. 기대의 쾌락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 때의 쾌락
13. 연상에 의존하는 쾌락	쾌락 자체가 대상이나 사건들과 연관되어 마음에 연상될 때 제공되는 쾌락
14. 안심에서 오는 쾌락	고통을 참고 견디어 내서 고통이 멈추거나 감해질 때의 쾌락

<표 3> 12가지 단순한 고통들의 종류⁹⁾

단순한 고통들	세부 종류
1. 상실의 고통	누려본 적이 있는 것을 다시 누려볼 수 없는 고통, 누려본 적도 없지만, 실제로 우연히 일어났다면 누려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기대하는 고통
2. 감각의 고통	배고픔과 목마름 등 물질적 부족으로 인한 고통, 미각의 고통, 촉각기관의 고통, 촉각의 고통, 청각의 고통, 시각의 고통, 발열이나 추위의 고통, 질병의 고통, 정신적 육체적 활동이 고통
3. 거부함의 고통	즐거움이나 안정성을 위해 도구를 쓰려고 할 때 잘 동원되지 않는 고통
4. 적대감의 고통	개인이나 여러 사람들과의 나쁜 관계에서 비롯된 고통
5. 불명예의 고통	평판의 고통, 불명예의 고통, 도덕적 제재의 고통
6. 경건성의 고통	절대적 존재의 불쾌감을 싫어한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통, 종교의 고통, 종교적 성향의 고통, 종교적 제재의 고통, 미신적 공포
7. 자선의 고통	선의의 고통, 공감의 고통, 자비로운 자나 사회적 감정의 고통
8. 악의의 고통	악의의 고통, 반감의 고통, 악의적인 자나 반사회적인 감정의 고통
9. 추억의 고통	적극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실의 고통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추억의 쾌락에 상응하는 고통
10. 상상의 고통	적극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실의 고통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상상의 쾌락에 상응하는 고통

11. 기대의 고통	적극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실의 고통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우리의 고통에 해당하는 고통
12. 연상에 의존하는 고통	연상의 쾌락에 상응하는 고통

벤담은 개별적으로, 상대와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쾌락들과 고통들을 광범위하게 고려하고 있다. 또한 그는 공리성의 원리를 인류의 최대 행복을 산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고려와 확신은 무엇보다 정통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 즉 도덕성(morality)에 대한 그의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는 금욕주의와 신학이 공리성의 원리와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예를 들었다. 그의 입장에서 금욕주의 원리에서 추구되는 행위, 즉, 일정한 쾌락의 억제는 행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는데(제2장, 3), 이는 공리성의 원리를 잘못 적용한 것에 해당된다. 그리고 신학의 원리는 옳고 그름을 신의 뜻에 호소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전혀 계시된 신의 뜻을 알 수 없고, 오히려 신의 의지를 가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제2장, 18).

이와 같이 개인과 공동체의 쾌락을 증진하고, 고통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벤담의 공리성의 행위 원리는 그 자체가 벤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정언적 명령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쾌락을 증진하고, 고통을 감소하는 행위 자체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의 의무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원리를 통해 행복, 선 또는 나쁨은 행위의 옳고 그름을 토대로 한다. 이런 점에서 벤담의 공리성의 원리는 바로 개인과 사회의 정의(justice)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이러한 정의는 선험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행위들로 나온다. 말하자면, 벤담에게서 정의는 덕의 성질을 갖는다. 한 행위의 형식이 갖고 있는 고결함(probity) 또는 정의(justice)를 유일하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공리성이다. 공리성이 이렇게 가능한 경우는 바로 정직과 정의가 덕들로 간주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¹⁰⁾ 이러한 행복의 형식은 한 사람의 행위에 의해 그 자신 및

9) Bentham(2011 M), 제5장 쾌락과 고통의 종류 참조,

10) Jeremy Bentham, *Deontology together with A Table of the Springs of Action and The Article on Utilitarianism*, Amnon Goldworth (ed.) (New York: Oxford

전체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행복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덕이자 칭찬을 받는 행위이다. 이것이 곧 정의의 맥락인 것이다.¹¹⁾

III. 밀의 공리성과 정의

벤담이 쾌락의 증진과 고통의 감소를 통한 행복 추구의 행위를 산출하는 공리성의 원리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밀은 19세기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들에 대해 참된 공리주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대응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밀은 사회 일반 사람들이 공리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가장 커다란 장애물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그의 의도가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요 이론들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공리주의에 관한 설명과 제안들은 기본적인 공리주의 사유와 다르다고 할 수 없다.¹²⁾ 오히려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오해, 즉, 공리주의 사유가 물질적,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오해에 대응함으로써, 공리주의의 본래 순수한 취지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¹³⁾

밀은 공리주의의 핵심명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고통과 쾌락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뜻하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 그러나 소소하게 설명할 것이 많다고 해서 이 도덕 이론의 핵심 명제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즉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쾌락이야말로 목적으로서 바람직한 유일한 것이며, 바람직한 모든 것(다른 모든 이론과 마찬가지로, 공리주의에서도 바람직한 것은 무수히 많다)은 그 자체에 들어 있는 쾌락 때문에 또는 고통을 막아

University Press, 1983); Max Hocutt, "Was Bentham a Utilitarian?",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Revue canadienne de science politique*, Vol. 38, No. 3 (Sep., 2005), p.707.

11) Hocutt(2005), p.710.

12) J. S. Mill, 서병훈 옮김, 『공리주의』 (서울: 책세상, 2007), p.19(1장 머리말).

13) Mill(2007), p.24(2장 공리주의란 무엇인가).

주고 쾌락을 늘려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것이 공리주의의 핵심 명제가 된다.¹⁴⁾

여기서 밀은 고통과 쾌락을 공리주의의 핵심 명제로 강조한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고통과 쾌락은 다양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여러 범주들과 설 명들이 나오면서 다양한 논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쾌락이라는 행복 추구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쾌락은 단순히 물질적, 신체적 욕구의 충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도 추구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이 두 가지 쾌락 가운데 어떤 쾌락을 추구해야만 하는가? 밀에 따르면, 도덕행위자가 이 두 가지 쾌락을 모두 경험했다고 전제할 때, 도덕적 의무와 같이 엄청난 불만족이 따르는 행위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는 쾌락의 양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쾌락의 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¹⁵⁾ 간단히 말해,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고상한 쾌락의 질을 추구하고, 그래서 “만족해하는 바보보다 불만을 느끼는 소크라테스가 더 나은 것이다.”¹⁶⁾

하지만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쾌락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또는 상당한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특정한 쾌락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들에서 최대 다수(the greatest number)의 기준은 적용될 수 있지만, 밀은 이를 단순히 숫자상의 총합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쾌락들과 고통들을 모두 경험한 불만을 느끼는 소크라테스는 소수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결정할 때에는 적어도 “각각에 대해 정통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이들의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중 다수의 판단이 가장 존중되어야 한다.”¹⁷⁾

여기서 밀이 생각하는 소크라테스의 비유, 최대 다수의 의미를 볼 수 있다. 적어도 밀은 쾌락과 행복의 추구, 고통의 감소 및 제거의 노력에

14) Mill(2007), pp.24~25(제2장 공리주의란 무엇인가).

15) Mill(2007), p.27(제2장 공리주의란 무엇인가).

16) Mill(2007), p.29(제2장 공리주의란 무엇인가).

17) Mill(2007), p.31(제2장 공리주의란 무엇인가).

있어서 인간적인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공리성의 계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을 위한 질이지 양이 아니다. 그리고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쾌락들 가운데 어떤 것이 중요한지, 고통들 가운데 무엇부터 제거해야 하는지의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이들을 분별하고 계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들에 대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질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더 고상한 행복을 가져오는 쾌락인지 고통의 제거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밑에서 도덕행위자의 인격 수준은 다음과 같이 행복 산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물론 고상한 인품의 소유자가 그런 특질 때문에 언제나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비록 각 개인의 행복이 고상한 인품을 지닌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만 결정될 뿐이라 하더라도, 공리주의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격이 전반적으로 도야되어야 한다.¹⁸⁾

따라서 우리는 밑이 공리주의를 오해했던 사람들에게 대응했던 것이 표면적으로는 올바른 공리주의의 이해에 관한 작업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시 사람들의 전반적인 인격의 도야에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밑은 인간적인 고상함을 이해할 수 있는 도덕행위자들, 이러한 행위자들로 구성된 고상한 사회, 그리고 어떤 쾌락 및 행복을 추구할 것인지에 관한 궁극적인 판단과 행위를 제시할 수 있는 지적인 덕들을 갖춘 ‘성숙한 정신문화’의 형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정도는 다르지만, 올바르게 양육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 애정을 쏟고 공공선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관심 가질 것도 많고 즐길 만한 것도 많으며 동시에 고치고 개선해야 할 것도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웬만한 수준의 도덕적, 지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위의 부러움을 살만한 삶을 영

18) Mill(2007), p.32(제2장 공리주의란 무엇인가).

위할 수 있다. (……) 웬만한 판단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만연한 구체적 해악의 대부분이 제거될 수 있고, 따라서 인간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면 그건 것이 궁극적으로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목표라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지성인이라면 그런 싸움의 과정에서 고상한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기적 자기 만족이라는 유혹 앞에서도 끝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¹⁹⁾

이런 점에서 밀이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했던 공리주의적 삶은 전체 집단의 행복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에게 무조건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삶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공동선이 함께 조화로운 수 있는 법과 사회 제도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진보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실현은 바로 교육과 여론을 통한 고상한 개인들의 인격 형성에 있다.²⁰⁾ 따라서 밀의 공리성에는 단지 벤담의 공리성의 원리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사회를 정신문화에 토대를 둔 문명사회로 진보시키기 위한 밀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밀의 또 다른 과제는 공리성과 행복이 과연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되는지에 관한 의심 또는 회의에 대한 대응이었다. 대체로 옳고 그름의 기준, 즉, 정의는 절대적인 것, 선형적인 것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밀은 이를 느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바라본다.

정의감은 특수한 본능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다른 본능과 마찬가지로 보다 높은 이성애 의해 통제되고 지도받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특정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충동질하는 동물적 본능뿐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도록 이끌어주는 지적 본능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전자가 후자보다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할 수는 없다. 동물적 본능이 때로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듯이, 지적 본능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할 수도 있다. 비록 우리가 자연적으로 정의감을 지니게 된다고 믿는 것과 그것이 행동을 위한 궁극적 기준

19) Mill(2007), pp.37~39(제2장 공리주의란 무엇인가).

20) Mill(2007), p.42(제2장 공리주의란 무엇인가).

이 된다고 인정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두 관점은 사실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²¹⁾

말하자면, 밀에게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속성의 것이 아니다. 행복이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점에 모두가 동의를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성적 동물인 인간은 자연적으로 동물적 본능과 지적 본능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절대 오류가 없는 정의는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밀은 이처럼 일반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정의가 특히 한 개인에게서, 자신의 주관적인 격률이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모순을 지적한다.²²⁾

밀에게서 중요한 점은 특정한 상황에서도 정의가 사회적 행복, 공리성, 특히 질적 행복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도덕적 요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다면, 힘으로라도 필요한 양식이나 약을 구하거나 흠치는 것 또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전문의를 납치해서 강제로라도 환자를 돌보게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²³⁾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에서 발생하는 그런 행동들이 인간의 도리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이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 정의를 편의에 맞게 적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것은 밀이 의도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사회 행복 일반을 향해 있다. 따라서 밀은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정의란 사회 전체 차원에서 사회적 효용이 아주 높기 때문에, 특정한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예외적 상황 아래에서는 정의의 이름으로 요구되는 몇몇 일반적 격률을 무시하는 것이 불

21) Mill(2007), pp.89~90(제5장 정의는 공리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22) Mill(2007), p.111(제5장 정의는 공리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23) Mill(2007), p.125(제5장 정의는 공리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가피하기는 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는 특정한 도덕적 요구를 지칭한다.²⁴⁾

밀은 매우 다양한 현실의 상황들에서 도덕적 엄격성과 이에 반할 수 밖에 없는 불의의 행동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밀의 정의론에 대한 평가는 공리주의적 이상의 차원, 즉, 사회적 공리성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말하자면, 그가 품고 있던 대승적 정서를 평가해야지, 겉으로 드러난 이론적 불완전함 또는 형식적 미완성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²⁵⁾ 그러므로 밀의 정의론 또한 근본적으로 공리주의를 고상한 정신문화에 기초한 사회로 확립하고자 했던 밀의 의도와 같은 맥락에 있다.

IV.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적 처벌과 행복

우선 벤담은 입법을 통해 처벌의 문제를 다룬다. 개개인들 일반의 전체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률 및 사회 제도의 정비가 중요하다. 그런데 처벌 자체는 개개인에게 고통 자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벤담에게서 처벌은 그 자체가 악이다.

1. 모든 법령이 지니고 있거나, 지녀야 하는 일반적 목적은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전체적 행복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선적으로 그러한 행복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모든 것을, 달리 말하면 폐해를 없애고자 한다(제13장, §1).

2. 그렇지만 모든 처벌은 폐해이다. 모든 처벌은 그 자체로서 악이다. 공리성의 원리에 의할 때, 만일 처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큰 어떤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 있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제13장, §1).

24) Ibid.

25) 허남결(2004), p.284.

처벌의 문제는 쾌락의 증진과 고통의 감소 및 제거, 즉, 공리주의의 정의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가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벤담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처벌이 근거가 없는 경우, 처벌이 예방하고자 하는 바의 폐해가 없는 경우이다.

(2) 처벌이 확실히 실효성이 없는 경우, 처벌이 폐해를 예방하도록 작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3) 처벌이 유익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비용이 드는 경우, 처벌이 초래할 폐해가 예방할 폐해보다 더 크다.

(4) 처벌이 불필요한 경우, 폐해가 예방가능하거나 처벌이 없어도 저절로 사라질 수 있는 경우이다(제13장, §1).

그렇다면, 처벌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처벌의 직접적인 목적은 위반자들의 행위를 통제하거나 그런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벤담에 따르면, 여기에는 두 가지 양상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위법자의 의지에 대해 처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교정의 방식에서 작용한다. 둘째, 위법자의 신체적 힘에 대해 처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무력화의 방식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벤담은 일반적인 방식에서 이루어지는 처벌의 방식보다 궁극적으로 위반자들의 의지 교정 및 도덕적 교화에 처벌의 목적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²⁶⁾

이런 점은 다음과 같이 벤담의 파놉티콘(panopticon)의 건립 의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만일 다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들을 예워쌀 수 있는, 그들의 행동과 [인적] 관계, 생활환경 전체를 확인하고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감사에서 벗어나거나 의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이것은 국가가 여러 주요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정말

26) Bentham(2011 M), pp.251~52(제13장 처벌에 부적합한 사례들, 각주1 참조).

유용하고 효력 있는 도구임에 틀림없다. (……)

감옥을 완전하게 개혁한다는 것은 죄수들이 바른 행동을 하도록 교화를 보장하고, 지금까지 신체적·정신적 타락으로 오염된 건강과 청결, 질서, 근면을 확고하게 하며, 비용을 감소시키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견고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간단한 건축 아이디어로 이 모든 것을 이루려는 것이 바로 이 글의 목적이다²⁷⁾

벤담은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는 악이지만, 이러한 악을 사회적 행복의 산출, 즉 선으로 향하게 만드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경험적으로 또는 경향에 따라 그런 행동을 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감옥의 목적과 그 환경에 따라 위반자의 미래 행복 또는 고통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벤담에게서 처벌의 필요악은 감옥의 수단을 통한 최대 행복의 선의 산출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를 통한 벤담의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이 도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 4> 벤담의 처벌의 적용 기준²⁸⁾

고려 기준	종류	세부 내용
1. 이루어진 행위 그 자체	1-1. 적극적 행위와 소극적 행위	- 운동이나 실천, 때리는 것, 작위 - 지속적으로 하지 않음, 부작위 행위나 억제 행위
	1-2. 외부적 행위와 내부적 행위	(외부: 신체적 행위) 타동적/자동적 - 행위의 결과가 타인에 전해지는 것/행위가 발생하면서 바로 종료 단계로 접어드는 것 (내부: 정신적, 마음의 행위)
	1-3. 일시적 행위와 지속적 행위	- 때리는 것은 일시적 행위 - 몸을 기대는 것은 지속적 행위(반복, 습관, 관행과는 다름)

27) Jeremy Bentham, *Panopticon*, 신건수 옮김, 『파놉티콘』 (서울: 책세상, 2011), pp.19~20.

28) (제7장 일반적인 인간 행위에 대하여, 제8장 의도성에 대하여, 제9장 의식에 대하여, 제10장 동기에 대하여, 제11장 일반적인 인간의 기질에 대하여)

	1-4. 불가분적 행위와 가분적 행위	- 상상에 불과한 것, 실증적으로 알 수가 없는 행위 - 실증적으로 알 수 있는 행위
	1-5. 단순한 행위와 복합적 행위	- 때리는 행위, 몸을 기대는 행위, 술 마시는 행위 등 단순한 행위 자체 - 수많은 단순한 행위들의 통합, 음식을 대접하는 행위, 어린이를 돌보는 행위, 승리를 과시하는 행위, 재판을 여는 행위 등
2. 행위가 이루어진 여건	2-1. 행위의 결과 측면	- 실체적인 것(행위의 결과에 가시적 관련성을 가진 것) - 비실체적인 것
	2-2.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관련	원인성 또는 생성의 방식, 파생의 방식, 부수적 연결의 방식, 결합적 향의 방식에서 어느 하나와 반드시 연결
	2-3. 위법행위의 측면(징벌적여건), 증거구성적 방식	- 변명적 여건 또는 정상참작적 여건 - 가중처벌적 여건
3. 행위의 의도성	3-1. 직접적 의도적 결과/간접적 의도적 결과	- 행위 자체, 행위의 결과에 관련에 따라 의도적 행위와 비의도적 행위로 구분 - 모든 행위 자체와 결과는 의도적
	3-2. 최종적 의도적 행위/중개적 의도적 행위	
	3-3. 단독적 의도적 행위/비단독적 의도적 행위	
	3-4. 결합적, 분리적, 무차별적 의도적 행위	
	3-5. 우선성이 있으면서 분리적으로 의도적 행위/우선성이 없으면서 분리적으로 의도적 행위	
	3-6. 좋은 의도와 나쁜 의도(쾌락과 고통의 산출)	
4. 여건에 대한 의식,	4-1. 여건(여건의 존재 자체, 여건의	- 행위 발생 시점과 여건은 항상 과거, 현재, 또는 미래와 관련됨

무의식, 허위의식	실체성)에 대한 인지 또는 잘못된 인지	- 잘못 인지했을지라도, 예방 또는 보상의 방식 중 하나가 실제적일 수 있음.
	4.2. 여건에 대한 비인지	- 부주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5. 특정한 동기 (오직 의지에 작용하는 동기)	5-1. 직설적 동기와 비유적 동기	-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의 동기(직설적) - 사건에 따른 정신의 강제적인 방향, 탐욕, 나태, 자비심 등(비유적)
	5-2.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 개별적인 운에 관한 지각(내적) - 사건 발생에 따라 쾌락이나 고통을 지각(외적)
	5-3. 예상적 동기와 실제적 동기	- 쾌락 또는 고통을 고려중인 행위를 고려(예상적) - 미래에 발생할 사건의 결과 고려(실제적)
	5-4. 유혹적 동기와 후견적 동기	- 동기의 해로움. 부패적 동기(유혹적) - 해로움의 억제. 보존적 동기, 보호적 동기(지속적/일시적)
6. 행위의 일반적 기질의 추측(개인 또는 타인 행복 추구)	6-1. 해로운 기질과 유익한 기질	- 외관상 악독한 경향을 띤 행위를 하기 쉬움(해로운) - 이것의 정반대(유익한, 자비로운 기질)
	6-2. 행위와 동기에서 기질 유추	- 행위의 외형적 경향으로부터 - 동기의 성격으로부터 유추 ex) 경향이 좋고, 동기가 이기적인 경우 또는 경향이 나쁘고 동기가 이기적인 경우 등

한편 밀에게서 정의감은 경험적인 느낌의 영역들에서 이해되고 있다. 그는 정의 개념의 어원을 고찰하면서, 주로 이 개념이 역사적으로 법과 밀접한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역사적 현실에서 법에 정의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법 아래에서 정의라는 미명으로 불의의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불의에 대한 복수 또는 보복의 감정들의 측면에서 정의는 처벌과 피해의 요소들을 포함한다. 밀의 자연적 감정으로서 정의감과 처벌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정의감은 남을 처벌하고자 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욕구는 사회전체를 통해서 또는 사회와 더불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공격에 대한 지적 반발과 동정심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서 복수나 보복을 가하고자 하는 자연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감정 그 자체는 아무런 도덕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다. 도덕적이라는 것은 사회적 동정심의 지시를 받고 그에 복종할 수 있게 그것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상태를 뜻한다.²⁹⁾

밀은 해를 끼친 사람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을 자연적 감정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처벌은 이기적인 자연적 감정과는 다소 수준이 다르다. 왜냐하면 인간의 동정심의 영역은 한 개인이 속한 사회, 공동의 이익, 인류 일반의 이익까지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³⁰⁾ 밀에게서 인간에 대한 처벌은 바로 이러한 동정심에 기초를 둔 질적 행복에 반하는 고통에 대한 저항인 것이다.

밀이 지적했듯이,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처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첫째, 타인의 본보기용, 즉, 다른 사람을 위해 동의 없이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 둘째, 독재자와 같이 불의의 자기 이익에 다른 사람들이 간섭하는 것(처벌)에 반대하는 것, 셋째,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예컨대, 어떤 한 사람이 교육과 성장 환경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등이다.³¹⁾ 즉, 처벌 또한 정의처럼 편의상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밀은 처벌의 출발점을 인간 상호 간에 해를 끼치는 것(특히 타인의 자유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 동시에 이는 자신의 권리이다.)을 금지하는 제1의 도덕 원리(가령,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두었다. 타인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 그 자체는 바로 인간의 복리(인류의 사회 평화 등의 유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1의 도덕 원리가 바로 위반자들을 처벌하는 토대가 된다. 이럴 경우 자연적 감정으로서는 정의감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자유에 대해 부당하게 침해당했을 때 보복의 욕구뿐만 아니라, 그의 자유를 누릴 권리, 나아가 그가 선택한 도움을 받았던 경우, 이를 다시 베풀어야 하는 도덕적 구속에

29) Mill(2007), pp.105~106(제5장 정의는 공리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30) Ibid.

31) Mill(2007), pp.112~113(제5장 정의는 공리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까지도 확대된다.³²⁾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갚는 것, 이러한 처벌의 원리는 인간 삶의 역사에서 새겨진 단순한 마음의 차원이 아니라 최대 행복의 원리와 직결되는 차원의 문제이다. 이럴 경우, 한 사람의 권리에 대한 대우는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한 대우와 동일한 수준에서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밀의 처벌에는 이러한 각 개인의 행복, 사회 및 인간의 질적 행복을 모두 동등하게 고려하는 공리성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

V. 결론

이번 연구에서는 벤담과 밀의 공리성과 정의의 관계를 탐구했다. 이는 공리주의에서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최대 행복(선의 문제, 윤리의 영역)과 이를 산출하기 위한 올바른 행동(정의의 문제, 도덕의 영역)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었다. 이번 연구에서 드러난 주요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벤담과 밀 모두 사회적 행복을 위한 공리성의 원리를 주장하였다. 최대 다수의 행복을 산출하는 행위를 장려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한 개인의 행복을 강조하면서도 사회 다수의 개인들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그래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이들의 공리주의 목표는 18세기~19세기 영국 사회의 행복을 증진하는데 있었다.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감소를 추구하는 행동의 목표는 행복 산출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행복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질적 행복의 측면에서 본다면, 벤담 또한 개인과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이 대립할 때, 공동의 개인들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행동을 분명히 강조했다.³³⁾ 다만 밀의

32) Mill(2007), pp.118~120(제5장 정의는 공리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33) 이런 점에서 특히 벤담의 공리주의를 결과주의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라이더(R. Ryder)는 다수의 개인들의 고통들의 단순한 합산보다 한 개인의 고통의 정도와 지속성이 도덕적으로 더 중요하다

언급을 통해서 행복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차이를 볼 수 있다.³⁴⁾ 간단히 말해, 벤담은 과학적인 증명을 통한 일반화가 아니고, 오히려 법칙의 측면에서 연역적 논증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셋째, 선형적이고 절대적인 관념으로서 정의관에 반대하고, 최대 행복의 사회를 산출하는 행위의 경험적이고 덕론적인 토대로서 정의를 바라보았다. 옳은 행동은 한 개인과 그가 속한 개인들의 행복을 최대한 산출하는 것이고, 그른 행동을 한 그와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공리주의적 정의는 바로 (소양을 갖춘) 최대 다수의 (질적인)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행동이다.

벤담에게서 처벌은 필요악이었다. 그러나 벤담은 단순히 위반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어떻게 그들의 의지를 교화

고 주장하는 가운데, 공리주의가 다음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모든 강간범들의 쾌락들의 한 여성이 그들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의 고통보다 클 때, 공리주의에서는 강간범들의 강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Richard D. Ryder, *Painism: A Modern Morality*(Glasgow: Bell & Bain Ltd., 2001) p.21. 그러나 이는 적어도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에서도 근본적으로 옹호될 수 없다. 왜냐하면 강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옳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강간범을 타당한 행위자로서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사회가 있는지를 먼저 반문해야 한다. 벤담과 밀의 주된 관심은 강간범의 쾌락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강간이라는 비인간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에서 개인들이 살아가야 한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34) Mill(2007), p.151(각주 17)의 밀의 언급 참조:

스펜서는 행동에 대한 관찰에 바탕을 둔 경험적 일반 이론을 통해서 그런 목적[행복이 도덕성의 궁극적 목적]을 부분적으로만 달성할 수 있을 뿐이고, 어떤 종류의 행동이 필연적으로 행복을 촉진하며, 반대로 어떤 것이 불행을 야기하는가에 대한 연역(삶의 법칙과 존재의 조건에 입각한 연역이어야 한다)을 통해서만 그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필연적’이라는 말만 빼고 나면 그의 생각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겠다. (……) 스펜서는 그의 책에서 특히 벤담을 주목하고 있는데, 벤담이야말로 인간 본성의 법칙과 인간 존재의 보편적 조건에 입각해서 행동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역해내는 것을 결코 꺼리지 않았다. 스펜서는 공리주의자들이 특수한 경험을 통해 일반론을 이끌어낸다고 지적하지만, 벤담은 그런 작업을 전적으로 거부하면서 오히려 스펜서식의 연역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내 생각으로는 (그리고 내 기억이 옳다면) 다른 모든 과학적 연구 분야와 마찬가지로 윤리학에서도 어떤 일반 명제가 과학적 증명을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근거를 얻어내자면 이 두 과정을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켜 사회적 행복으로 전환시킬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고, 이러한 아이디어의 결과가 바로 파놉티콘이었다. 밀은 실제에서 역사적으로 정의감에서 비롯된 정의의 양상, 즉, 각 개개인의 권리와 평등을 보호하기 위한 처벌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질적인 최대 행복의 산출은 권리와 평등과 같은 사람이 본래 갖고 있는 것을 동등하게 고려할 때에만 가능하다. 눈에 눈, 이에는 이로서 대응하는 자연적 감정, 법적 제도의 처벌의 수준은 공리성의 원리에서 강력한 도덕적 구속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벤담과 밀에게서는 최대 다수의 행복, 실질적인 사회의 전체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고통 방지 또는 제거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였음을 알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처벌의 문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공리주의 전통에서 여전히 최대 행복의 원리의 근본적인 관심사임에는 분명하다.

참 고 문 헌

- Bentham, Jeremy,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 of Morals and Legislation*(1823), 고정식 옮김,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파주: 나남, 2011.
- , *Deontology together with A Table of the Springs of Action and The Article on Utilitarianism*, Amnon Goldwor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 , *Panopticon*, 신건수 옮김, 『파놉티콘』, 서울: 책세상, 2011.
- Hocutt, Max, “Was Bentham a Utilitarian?”,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Revue canadienne de science politique*, Vol. 38, No. 3 (Sep., 2005).
- Mill, John Stuart, *Autobiography*, Currin V. Shields (ed.), New York: The Liberal of Liberal Arts, 1957.
- , 서병훈 옮김, 『공리주의』 (서울: 책세상, 2007), p.19(1장 머리말).
- Ryder, Richard D., *Painismr A Modern Morality*, Glasgow: Bell & Bain Ltd., 2001.
- Troyer, John (ed.), *The Classical Utilitarians: Bentham and Mill*,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2003.
- 허남결, 『공리주의 윤리문화 연구 -벤담과 밀의 입장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 화남, 2004.

<Abstract>

A Study of a Relation between Utility and Justice in Jeremy Bentham and John Stuart Mill

Jang, Jung-Hun

This essay aims to explore a relation between utility and justice in Bentham and Mill, which enables us to connect the elements of goodness in the area of the greatest happiness with those of right and wrong in that of justice in utilitarianism.

Bentham and Mill, first of all, try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utility, in particular, for maximizing social happiness. It is their works that improve mental environments and degrees of individuals from the 18th to 19th century in England. Acting to maximize general happiness and producing the greatest happiness are the core notion of utilitarian justice: praising those who produce the greatest happiness, but punishing those who harm to others.

In Bentham, the conception of punishment is the key way to transform the evil to be happiness, even if it is the necessary evil in itself. Mill considers the importance of the first moral principles like rights and equality which have historically developed in the minds of human lives as the sense of justice. In Mill, unless an agent was protected in exercising his/her rights, any invader must be punished for improving social happiness of higher quality.

To sum up, it would be made an obvious conclusion that the problem of punishment is one of main roots to produce the greatest and high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and highest numbers.

Key words : Utility, Pleasure and Pain, Justice, Punishment, Social Happiness